

지역 영상산업 정책비교를 통한 영상산업 클러스트 연구

- 수도권, 부산, 전주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Film Industry Cluster through the Policy Comparison of Regional Film Industry

- Focus on the Metropolitan, Busan, Jeonju Areas -

김진해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Jin-Hae Kim(kajak2@ks.ac.kr)

요약

본 논문은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별 영상산업 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영상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지를 밝히는가가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전주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자체별 영상산업의 인프라 및 영상정책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영상산업 클러스트의 유형을 영상 산업형 클러스트와 영상·관광사업 연계형 클러스트로 구분하고, 영상 산업형 클러스트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와 국내 차원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로 다시 구분한 뒤 서울, 경기, 부산지역은 국제거점 영상 클러스트로 지정하고 전주, 대전지역은 지역거점 영상 클러스트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영상·관광사업 연계형 클러스트는 로케이션 유치 및 오픈세트 등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강원, 충청, 제주 지역 등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 중심어 : | 영상산업 | 균형발전 정책 | 영상 클러스트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how to build the film industry cluster compare with the policies of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film industry. This research select four areas including Seoul and Kyunggi areas and Busan, Jeonju. And through the compare with the film industry infra & policies which results in as follows. This research suggest that film industry cluster devided into the two types. The one is the Film Industry Cluster Type and the other is Film Connected Tourism Business Cluster Type. Film Industry Cluster Type is devided into international competitive cities and domestic film industry cities. We suggest that Seoul, Kyunggi and Busan areas are designated to international competitive cities and Jeonju and Daejeon areas are designated to domestical cities. And the kwangwon, Chungcheng, Cheju Areas designated to Film Connected Tourism Business Cluster for location and open set business to improve the local development.

■ keyword : | Film Industry | Balance Development | Policy | Film Industry Cluster |

* 본 연구는 2008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80626-001

접수일자 : 2008년 06월 26일

심사완료일 : 2008년 08월 19일

교신저자 : 김진해, e-mail : kajak2@ks.ac.kr

I. 서론

1.1 연구목적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으로 부산은 영상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비전 제시와 함께 영화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에 힘입어 부산은 영상문화중심도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영상을 부산의 4대 산업의 하나로 육성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이어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를 개최한 부천시 뿐 만이 아니라 경기도는 일산에 한류우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바 있다. 전주는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와 함께 HD 디지털 영상산업 후반작업 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 및 충남 지역 역시 각각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디지털 특수효과 기술 사업 및 문화 디자인 등을 영상산업 육성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13].

이처럼 영화영상 분야는 최근 10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 산업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형 산업으로서 뿐 만이 아니라 관광산업 발전 및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영상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상산업은 한류 현상, 디지털 기반의 매체환경 변화와 맞물려 향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업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화영상을 주요 산업의 하나로 설정하는 도시들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2년 영화영상관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맞물려 부산의 경우 영상 산업 육성에 대한 열기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실정이다. 부산 뿐 만이 아니라 전주는 디지털 영상 마스터링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모션 캡처 그래픽 기반 시설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구 역시 경북영상위원회의 신설 및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게임 관련기반 특수효과에 사업 역점을 두고 있으며, 춘천은 애니메이션 산업에 초점을 맞춘 특성화 사업을 시행중이기도 하다[4].

영상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한 지방 자치단체들은 영상 제작 기반시설 등 지역 영상 클러스트 구성을 통해 영상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들을 활발히 수립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의 영상산업 기반시설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지금까지 국내 영상산업의 생산과 소비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영상 산업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 달성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아야하는 각 지방자치체 단체들의 전략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각 자치단체별 신규 영상사업 모델은 무엇이며, 그들의 특성화 사업 부문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다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영상산업의 클러스트 지형도를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가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방법

이번 연구는 기존 영상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국제영화제의 성공으로 비교적 지자체의 영상산업 육성 의지가 돋보이는 부산, 전주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의 영상산업 클러스트 조성 현황을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정책 등의 카테고리 속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후 각 지자체별 영상산업정책들을 비교 검토한 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영상산업에 관한 문헌 및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보고서, 해외 사례연구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할 것이다.

이 연구는 영상작업 기반시설과 종합촬영장, 세트장 등 영상 인프라 조성에 투입된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신규 수요 창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토대 마련 및 현재 추진 중인 영상 클러스트 사업에 대한 수정 계획과 영상 산업 수요 창출을 위한 신규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II. 본론

2.1 수도권 영상정책 및 평가

수도권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일원을 의미하며, 서울 시와 경기도의 영상산업 정책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는 7대 사업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충무로를 영상산업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충무로 영화인의 거리 조성 사업과 충무로역 영화테마파크 조성 추진 및 충무로 영상센터 리모델링을 시행 중이다. 둘째, 예술영화 육성 지원 사업으로 서울 로케이션 비중이 70% 이상인 장. 단편 예술 영화에 대한 지원으로 제작비 30% 이내, 총 6,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예술영화축제를 매년 8월 2주간 문화예술회관과 구민회관 등에서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독립영화 육성사업으로 모든 장르의 독립영화 10여 편을 총 1억 원 범위 내에서 서울영상위원회를 통해 지원하며, 동 위원회의 제작 지원을 받은 독립영화 작품을 서울 개최 영화제 및 영상 미디넷 사업과 연계하여 배급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서울 디지털영화제를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들과 연계하여 청계광장, 서울 역사 박물관, 애니메이션센터 등에서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며, 입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및 시사회 장소 등 마케팅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국내외 방영 드라마 경연 대회 및 우수 드라마 시상식을 2007년부터 가을 축제로 정례화하며, 여섯째, 애니메이션 창작 지원실을 마련하여 전문기술 및 제작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외국영화의 서울 로케이션을 적극 유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비의 일부 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료의 면제, 장소 제공 등의 행정지원을 하며, 서울을 매력적인 촬영지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로케이션 설명회를 프랑스 칸 영화제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의 밤’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1].

이 같은 서울시의 사업추진 계획 뿐 만이 아니라 경기 수도권 일원의 고양, 파주, 포천, 용인 등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2002년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부터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상암동 DMC 내에 디지털 방송을 선도하는 종합방송제작 지원센터로서 HD급 첨단 디지털 콘텐츠 공급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윈스톱 풀

서비스 시스템을 2007년 12월에 완공한 바 있다.

경기도는 경기영상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각 지역별 영상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의 문화기반 시설은 부천문화산업 클러스트 조성 및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육성 외에 고양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류우드로 명명되는 이 사업은 도비 8,389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조 6,879억 원을 들여 스타의 거리, 한류 쇼펜센터, 게임월드, 스타 빌리지 등의 한류체험시설 건립과 관광숙박시설, 문화콘텐츠개발 시설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별로는 고양시가 일명 브로멕스(Bromex)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연건평 10만평 규모의 종합방송 제작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으로 디지털 문화 콘텐츠 관련 집적화와 IT산업 집적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것이다. 파주시의 경우 통일동산 부근에 약 4*20만 평 규모로 촬영세트장 및 놀이동산을 조성할 계획인 시네마 파크 사업은 약 4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 파주시는 출판문화정보 사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으로 영화 제작사 유치를 계획 중이다. 이외에도 포천의 경우 오픈세트장, 자연 휴양림과 숙박시설 등 13만 9천 평 규모의 부지에 총 730억원이 소요되는 영화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용인의 경우 MBC가 주축이 되는 드라마 세트장 사업이, 동두천의 경우 170만 평의 부지에 영상테마파크 및 영상대학 등의 드림파크 사업이 계획 중이다[2].

위에 열거한 사업들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경기도의 각 시군별 문화콘텐츠산업 단지 현황 및 개발계획(단위: 천 평 / 억 원)

시·군	사업명	내용	사업주체	사업면적	현황	소요 예산 (추정치)
10개 시·군	17개 사업	.	.	400만평 - 480만평		6조~10조
고양	한류우드	한류 관련 복합 생산·유통 단지	경기도	300	추진중	26,000
	Bromex	대규모 방송영상 단지 조성	고양시 (국도시비/민자)	700 - 1,300	계획중	27,000 - 90,000
	SBS탄현 제작센터	스튜디오	SBS	3	운영중	

	MBC 방송센터	종합 방송 제작센터	MBC	15(연건 평100)	추진중	
파주	시네마파크	촬영세트장 및 놀이동산 등	파주시 (국도비/민간)	40-200		
	파주출판단지 2단계사업	영화업체 유치	한국토지공사	33	계획중/추진중	-
	아트서비스	스튜디오	아트서비스		운영중	
남양주	종합촬영소	스튜디오, 야외세트장 등	영화진흥위원회	400	계획중	-
	영상단지 (제2종합촬영소)	영화촬영소, 애니메이션 단지	남양주시 (전액 민자)	137	계획중	337
포천	영화마을	영화촬영소, 숙박시설	포천시	139	계획중	730
용인	MBC 드라마아	드라마 시대세트	용인시/MB C	430	추진중	1,600
부천	영상문화 단지	야외세트장	부천시	20	운영중	
	한국만화영상 산업진흥원	만화, 애니메이션 지원시설	정부/도/부천	8	추진중	600
수원	KBS 수원센터	스튜디오, 야외세트장	KBS	17	운영중	
양주	MBC 문화동산	스튜디오, 야외세트장	MBC	50	운영중	
동두천	드림파크	영상테마파크	동두천시 (전액민자)	1,700	계획중	10,056
안양	방송영상 특화단지	방송시설	안양시 (국도시)		계획중	350

자료 : 추진속 외, 「경기도 영상산업 중장기 비전 연구」, 경기영상위원회, 2006, p.109~110 재인용

서울의 경우, 기존의 충무로, 강남 등지에 영화 제작사 및 민간 후반작업 회사들이 위치해 있고, 여의도, 일산, 목동 등에 방송 3사 및 기타 방송영상제작 센터가 입주해 있어 영상 미디어 클러스터로서의 지향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위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경기도의 경우 도내 영상단지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영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지역의 특성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순히 여유 부지를 활용하거나 민간 투자자들과 연계하여 부동산 투자의 한 방안으로 조성과 집적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문제이다. 예를 들면 상암동 DMC는 영화제작사 중심의 컨소시움이 탈락하고 부동산 개발투자가 강조되어 사업이 추진된 점을 미루어볼 때 지자체에서 영상산업 자체의 육성보다는 기타 수익원의 창출 등의 부대 사항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파주에서 추진 중인 영화제작사 유치사업은 다수의

영화제작사 및 배우, 스태프 등이 서울 일원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기 북부 일원에 인위적으로 제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는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영상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업체가 입주하고 일산 지역에 스튜디오 등 후반작업 기지시설을 구축하고 파주나 양주 등 근교에 대단위 오픈세트나 촬영전문세트를 조성하는 것이 각 지역의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영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2.2 부산의 영상산업 및 정책평가

영상산업을 4대 중심 육성 사업으로 설정한 부산은 2014년 ‘아시아 영상허브 부산’ 건설을 목표로 차세대 고부가 가치산업인 영상산업 육성을 통해 부산의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부산을 아시아 영상산업 메카로 조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은 ‘ABC’ 3대 기본 전략과 ‘CINEMA’의 6대 실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A(Asia)는 아시아 시장을 지향하기 위한 영상산업 구조개편과 B(Both)는 영상문화중심도시로서의 브랜드 구축, C(Cluster)는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조성을 뜻한다. 이를 위해 C(Cinema)는 영화관련 기업유치 및 육성전략을 통한 사업으로 총 851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 I(Infra)는 영상산업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산영상센터, 영화후반작업시설, 영상체험박물관,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영화종합촬영소 건립 등 영화기반시설 구축사업이다. N(Network)은 부산지역 영상산업 구성주체인 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영상포럼구성, 부산 영상넷 구축사업 등 총 191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E(Earth)는 국제화 전략으로 부산을 문화콘텐츠 글로벌 마켓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으로 국제영상박람회 등의 사업에 총 518억 원이 투입된다. M(Man Power)은 인력양성사업으로 부산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 등 핵심연구인력 양성사업으로 총 172억 원이 투입된다. A(Amenity)는 문화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문화관광 육성사업으로 로케이션 장소에 대한 장소 마케팅 및 부산국제영화제 참여 사업 등 775억 원

을 투입한다.

부산시의 주요 추진 과제들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부산영상산업 육성정책

구분	추진사업명(단위사업)	비고
계	20개 사업	
H/W부문 육성사업 (6개)	1. 부산영상센터 건립	진행사업
	2.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	진행사업
	3.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진행사업
	4. 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립	구상사업
	5. 부산영화종합촬영소 조성	진행사업
	6. 제2 스튜디오 건립	신규진행사업
S/W부문 육성사업 (17개)	7.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진행사업
	8. 아시아필름마켓(AFM) 개최 지원	진행사업
	9. 게임개발자회의(ICON) 개최 지원	진행사업
	10.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진행사업
	11. 부산영상벤처센터 운영	진행사업
	12.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운영	진행사업
	13. 시네마테크부산 운영	진행사업
	14. 부산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	진행사업
	15.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진행사업
	16. 영화영상진흥기금 조성	진행사업
	17. 문화산업투자회사	신규진행사업
	18. 영상업체 멘토링 지원	신규구상사업
	19. KCTA 전시 및 컨서런스 개최 지원	신규진행사업
	20. 부산국제광고제	신규진행사업
	21. 부산방송콘텐츠마켓(BCM)	진행사업
22. 아태지역 영상산업 정책책임자대회	신규진행사업	
23. 영상분야 선도기업 공동마케팅 지원	진행사업	
인력 양성사업 (3개)	24.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추진	진행사업
	25. 부산 게임아카데미 운영	진행사업
	26. 영상기술교육 운영	신규진행사업
원료사업 (2개)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RIS) 추진	'07년 사업완료
	영상관련 공공기관 유치	'05년 완료(S/W)

자료 : 부산광역시(2007)

부산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의욕적으로 영상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 배경에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의 영상산업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지금까지 선도해 왔으며, 그 영향력은 영상산업을 부산의 주요한 콘텐츠 사업의 하나로 키우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제 영화축제와 영상산업을 분리하여 추진할 시점이다. 위 현황들을 살펴볼 때 우선 인프라 구축 사업을 검토해보면 후반작업시설 및 영화체험박물관 등의 구축사업은 국내 영상산업 수요조사를 통해 건립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후반작업기지 건설의 경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최소한 15편~20편의 극영화 공급물량이 적정 가동율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추정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한국의 영화산업 전체가 위축되어 연간 80여 편 제작이 힘든 현실에서 20% 이상의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수요 창출이 아닌 전체 물량을 나눠먹는 식이라면 제로섬 게임의 이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기반시설 확충에 선행해서 물량확보 방안을 위한 해외 마케팅 전략과 고급 기술 인력의 확보 등의 사전 준비가 더욱 절실한 때이다. 아울러 현재 전국적으로 설립된 13개 영상위원회의 역할 중 1999년 맨 처음 설립된 부산영상위원회는 여전히 로케이션 지원 및 독립영화제작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는 소극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부산의 영상산업에 조타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영화를 포함한 게임, 영상 등을 아우르는 영상콘텐츠진흥원의 설립을 통한 영상산업 진흥책을 강력히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2.3 전주시역 영상정책 및 평가

전북지역 영화산업 관련 기업체 수는 총 3,758개이며 종사자수는 1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영화관련 업체는 79개로 전국적으로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 같은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주국제영화제의 호평 속에 전주시는 영상산업 육성 5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우선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투자 효율성과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공공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의 공유화, 제작과 교육기술과 인프라의 통합 네트워킹, 그리고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혁신체계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한 2010년 까지 영화 촬영소와 시네 콤플렉스 건립을 통한 영화산업 기반조성단계, 산업인프라 특화 사업과 2017년 까지 영화제작 중심도시로서의 완성 단계로 간다는 계획이다.

주요추진과제로는 첫째, 디지털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을 통해 저예산 독립영화, 예술영화, 단편영화의 상영 기회 확대 및 공간 확보 둘째, 디지털 필름마켓을 운영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성 확보, 영화영상 연구소를 설

립하여 세미나 개최 및 영화영상 관련서적 발간 및 정책 개발사업, 2011년부터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아시아 필름 커미셔너 네트워크를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개최하며 전주에서 40% 이상 촬영하는 영화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영화영상투자조합 설립하며, 다섯째, 전주종합촬영소의 운영과 디지털 후반작업시설 시스템구축 사업을 통해 D-Cinema의 선진화, 여섯째, 2007년부터 3년간 38억원의 예산으로 영화 도서관과 디지털 상영관의 운영 등 시네 콤플렉스의 기반 구축, 기타 영화의 거리 특구 조성 사업과 한국영화의 전당 건립 및 스타 프로젝트 등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3].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전주 영화영상산업 주요 세부추진사업

5대 중점과제	세부추진사업	사업 우선 순위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10대 영화제로 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사업	1
	디지털독립영화전용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	1
	디지털 필름마켓 운영방안	2
아시아 HD영화제작 전진기지 구축	영화영상 R&D 연구소 설립	2
	해외 영화제작유치 기반사업	2
	로케이션 영화관광산업 모델 개발	1
수준높고 차별화된 영화 제작도시 조성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및 활성화 사업	1
	원스톱 영화제작 시스템 구축사업	1
	전주 시네콤플렉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의 거리' 특구 조성	영화 스토리텔링 테마거리 조성사업	2
	한국영화의 전당 설립 및 운영	3
	전주천 에메니티 구축사업	3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 Star 프로젝트 추진	우수 장편 시나리오 제작지원사업	1
	영화영상 스타 아카데미 활성화 방안	1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활성화 방안	1

자료: 전주시

이상과 같이 전주의 영상산업정책들을 살펴보면 매우 의욕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러나 이런 목표들은 이미 부산이나 수도권 및 여타 지역에서도 시행중인 사안들이다. 이를테면 디지털 독립영화관 전용관 건립은 이미 모든 영상 매체가 디지털화하는 시점에서 당연한 정책이며, 디지털 필름 마켓 또한 디지털이란 용어 자체로서는 그 의미가 상실될 것이다. 특히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경우 그 시설비 규모가 23억 5천만 원으로 소규모 세트장 수준이다. 현재 촬영 스튜디오는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으며, 기존 촬영 스튜디오 가동율이 60%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효율성 또한 문제로 지적되면서 중복 투자의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

디지털 후반작업 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영화제작이 원스톱으로 전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율성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주의 경우 <HD 장편영화 지원사업>이 제작 활성화에 가장 성공적이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영화제작의 활성화라는 측면과 기존 공중파 방송과의 제휴 그리고 신진 영화 인력의 창작기회 제공 및 지역 쿼터에 따른 지역출신 영화인의 제작기회 제공 등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후 배급 및 개봉 과정에서 전주 영화제에 단순히 소개된 이후 대중적인 상영이 이루어지지 못해 일정 부분 실패한 측면 또한 존재한다. 사실 전주의 경우 지방 도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이 같은 제작 지원 사업의 활성화와 스타 프로젝트를 통한 시나리오 공모전과 같은 사전제작 지원 사업이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2.4 소결론

각 지역의 영상산업 정책을 개괄하는 작업에서 우선 인지되어야 할 사항은 각 지역에서 영상문화라는 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각각 다르다는 점이다.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한다면 영상, 혹은 영상문화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려되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즉 영상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기 보다는 지역의 발전을 우선시하여 지역의 문화적 발전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영상을 지역의 교육이나 계몽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바로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지역의 영상산업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산업적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현재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영상산업을 지역문화 발전의 차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주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제주, 강원, 제천 등이 그 실례이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영상을 산업 동력의 차원으로 인식하는 서울, 경기, 부산 등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정책 조율에 있어 영상산업 발

전을 추진해야하는 지역과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 지역의 정책비교에서 눈에 띄는 점은 서울, 경기, 부산, 전주의 경우 영상산업 발전방안들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부분적인 차이점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영상산업 발전방안은 중복적이거나 특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규모가 다르며 정책의 성격과 추진 사업은 지역 간에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부산, 전주 지역의 영상산업 발전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것은 클러스트 조성을 포함한 영상산업 기반시설의 구성 및 확충, 영상제작 활성화 방안, 영상산업 인력양성 방안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래 도표를 통해 지역 간의 유사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영상센터 건립 * 부산영상후반 작업시설 조성 * 부산영화체험 박물관 건립 * 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립(구 상사업) * 부산영화종합촬영소 조성 * 제2 스튜디오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 부산영상벤처센터 운영 * 부산영화촬영 스튜디오 운영 * 영상업체 멘토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추진 * 부산 게임아카데미 운영 * 영상기술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필름마켓(AFM) 개최 지원 * 게임개발자회의(ICON) 개최 지원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및 활성화 사업 * 전주 시네콤플렉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의 거리' 특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 10대 영화제로 육성 * 영화영상 R&D 연구소 설립 * 우수 장편 시나리오 제작지원사업 * 원스톱 영화제작 시스템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영상 스타 아카데미 활성화 방안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활성화 방안 	

자료: 김진해 외, 지역영상산업활성화 방안 및 수도권과의 균형발전 전략 방안 연구, 178쪽, 문화체육관광부, 2008

표 4. 서울, 경기, 부산, 전주지역의 주요영상산업발전방안

	영상산업 시설 조성	영화제작 활성화	인력 양성	기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무로 영화인의 거리 조성 : 충무로 3가 일대 * 민자유치를 통한 충무로역 영화테마파크 조성 추진 * 충무로 영상센터 리모델링 및 재배치 : 영화관, DVD감상실, 편집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예술영화 축제(Seoul Art Cinema Festival) 개최 * 서울디지털영화제 개최 * 우수 드라마 지원(Seoul Drama Award) * 애니메이션 창작 지원 - 애니메이션센터 창작지원실 * pre-production 진흥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 도입·운영 * 독립영화 육성지원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폴리스 조성 - 영상 창작의 모든 것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산업 전진기지 조성 * 기존 인프라 운영개선 - 영상제작단지의 종합관리시스템 확립 * 한류우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제작지원 - 영상물 창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 촬영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및 제공 - 영상물 촬영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산업 산학협동 시스템 조성 - 미래지향적인 우수 영상인력 양성 * 공공영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영상콘텐츠를 원천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저변 확대와 영상지원정책의 공공성 강화 * 영상산업정책 연구 - 학술지원을 통한 신진 연구인력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벨트 조성 - 촬영지 주변지역과 연관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 내 산재한 영상자원의 관광벨트화 *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 지역인력 및 업체의 촬영현장 협력 프로그램 운영, 영상자원의 관광벨트화 * 참여를 통한 문화복지 실현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대전지역은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영상산업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화 이외에 방송, 게임, 영상기술 개발과 같은 영상산업 진흥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한 영상특수효과와 같은 기술개발에 커다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 지역은 충남디지털 문화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문화디자인 분야를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상산업 진흥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 대전과 충남에서는 전국적인 영상 산업의 흐름을 파악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덕특구와 연계된 영상기술개발, 그리고 충남의 경우는 지역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교육 환경을 고려한 문화디자인 분야의 정책이 중점적으로 수립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강원, 제천, 제주 지역은 로케이션 유치와 같은 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이외에 교육사업과 인프라 구축 사업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천 지역에서는 영상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영상산업 정책보다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불러일으

키는 영상미디어 교육, 체험관 및 시네파크, 창작지원 시스템 강화와 같은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원 지역에서는 원주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와 연계한 영상산업이 계획되고 있다[4].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영상을 산업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지역과 지역문화 발전의 차원으로 간주하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상산업 활성화에 치중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전주 지역에서는 산업의 발전 방향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서울 지역에서 예술영화 진흥책이나 프리프로덕션 특화사업, 경기 지역에서 관광벨트와 영상산업의 연계사업, 부산 지역에서 아시아 필름마켓 활성화 사업 같은 것들이 존재하며 나름대로 차별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화 사업이 세부적이고 상대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III. 결 론

이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인 영상정책의 거시적 지형 계획 수립 가운데 영상 클러스트 구성에 대한 대안 제시로 결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의 영상산업을 지역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미래를 염두에 둔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상산업 클러스트 특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영상산업 거점도시의 설정과 영상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및 문화 활성화 추진도시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이중 영화의 경우 이를테면 기획, 제작, 배급, 상영 등 영상 산업의 전 과정이 활성화됨으로써 국내 영상산업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국내 영상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상산업형 클러스트와 영상 로케이션 유치, 오픈 세트와 연계한 테마파크 사업 등 영상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는 영상. 관광산업 연계형 클러스트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영상산업형 클러스트의 경우 다시 산업 기반과 연구 역량, 자치 단체의 추진 실적 및 정책 의지 등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었거나 가까운 시점에 이를 확보할

수 있는 국제 거점 영상 클러스트를 지정하고, 여기에 서울, 경기, 부산광역시 등을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디지털 영화, 독립영화와 같이 국내 영화영상산업과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영상 클러스트를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전주, 대전광역시 등을 편입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클러스트 지정은 영상산업 기반 시설 등의 지역별 편차와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광역단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은 국제 거점 영상클러스트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특히 침체 위기에 처한 한국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부산의 경우 역시 국제 거점 영상 클러스트로 지정 육성하여 국내 영상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회에 일익을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전주, 대전 지역 등은 디지털 영화 등의 정책 추진 실적과 디지털 기술 기반 역량을 갖춘 대덕 연구단지 등과 연계해서 획일화에 처한 국내 영상산업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거점 영상 클러스트로 지정 육성함이 옳을 것이다.

아울러 자연 환경 및 관광 기반이 우수한 강원, 제주, 호남권은 영상. 관광산업 연계형 클러스트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4]. 영상산업 클러스트의 차별화 정책을 통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영상산업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별 산업 기반과 정책 목표에 기반한 특성화 추진을 통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오픈세트 건설과 같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권역별 클러스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지역별 영상 산업의 특성화가 성공할 경우 지역이 안고 있는 인력 유출 및 경제 활성화 등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추가 연구로 우리는 영상 클러스트 조성사업의 성공사례의 하나인 세계적 경쟁거점 도시,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도시, 국가적 경쟁거점 도시로 구분한 프랑스의 경우[12]를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는 추후 좀 더 심층적인 연구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몫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경기영상위원회, 경기도 영상산업 중장기 비전연구, 2005.
- [2]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지역 영상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통한 지원방안 연구, 2007.
- [3] (사)전주영상위원회, 전주영화영상산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2007.
- [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영상산업활성화 방안 및 수도권과의 균형발전 전략방안 연구, , 2008.
- [5]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2007(10).
- [6]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작 기반시설 시설확충 연구, 2006.
- [7] 영화진흥위원회, 지역문화기반시설을 이용한 영상문화 발전방안, 2006.
- [8] 문화관광부, 지방문화산업 발전전략과 기본방향 연구, 2004.
- [9] 문화관광부, 영상산업 분야 기자재 구매 운영실태 조사 및 중장기 운영계획 연구, 2005.
- [10] 부산광역시, 부산영상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2005.
- [11] 전주시, 전주문화산업 클러스트 조성 및 개발기본계획, 2003.
- [12] 배준구, 프랑스 지역혁신정책, 프랑스문화연구 15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07.
- [13] 문화관광부, 제18대국회 정책현안자료집, 2008.
- [14] 서울시청(www.seoul.go.kr)
- [15] 경기도청(www.gg.go.kr)
- [16] 부산시청(www.busan.go.kr)
- [17] 전주시청(www.jeonju.go.kr)
- [18] 통계청(www.nso.go.kr)

저 자 소 개

김진해(Jin-Hae Kim)

정회원



- 1981년 2월 : 연세대학교(문학사)
- 1984년 8월 : 뉴욕테크대학원(영화영상학석사)
- 1997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연극 영화학부 교수

<관심분야> : 영화제작, 영화정책, 영상콘텐츠, 디지털 영화 이론 및 제작